

사설

나눔의집 운영 지장없게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이 함께 일했던 간사와 선관계를 갖고 고민해 왔다는 양심고백을 접하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스님의 모습을 많은 불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종교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일을 하는 한 가운데 혜진스님이 있음을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스님의 행적이었기에 불자들은 더욱 놀랐으며,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양심고백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후원을 끊겠다는 사람도 있으며, 위안부 역사편의 방문을 취소하는 일도 있다는 소식이다. 스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혜진스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비판을 나눔의 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려 노력했던 일까지 의심 사안은 결코 아니다. 혜진스님을 옹호하려는

말이 아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터로 계속 있을 것이고, 위안부 역사편 역시 이른 역사를 교육장으로 삼는 교육장으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니다.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공회의를 열어 후임 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자들은 물론 국민의 관심사만큼 청정하고 능력있는 분을 모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한다.

우리는 이번 일을 접하며, 다시 계율의 지중함을 아파게 깨닫는다. 지체는 스님들이 생명처럼 받드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불자들은 물론 세인의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범법경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다고 했다.

여성단체에도 한 가지 당부하고 싶다. 혜진스님의 양심고백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위계관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인권 가장한 또다른 인권폭력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종조의 화합정신 살리자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태고종이 집입가경의 모습으로 치달고 있다. 총무원장이 되어 버린 결국 총무원이 또 하나 생길 모양이다. 우리는 조계종 분규사에서도 한 종단안에 두 총무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청정하고 탁발적이어야 할 승가단체에 세속의 갑부싸움과도 같은 두 개의 총무원과 두 명의 원장은 세간의 조소 대상일 뿐이었고 시간 낭비, 정재 낭비 그리고 종단역사를 뒷걸음질치게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소익이 없었던 아픈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런데도 태고종은 그 전철을 밟을 모양이다.

이번 분규가 태고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세칭 '7인방' 스님들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의 평대라면 결국 이번 분규는 이들 스님들이 풀어야 한다. 20여년 동안 태고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던 그 애증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파국으로 가는 길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양보를 상대방에게만 요구한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태고종단 자신이다. '7인방'

스님들은 조계-태고 분규로 가장 종단이 어려워진 70년대 초 종단을 위해 한마음으로 똘똘한 그 초발심을 상기해주시길 바란다.

21세기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승교화종단을 자부하는 태고종이 할 일은 태산이다.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왜 일어나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한 이러한 분규를 장기간 지속해 그나마 있는 힘을 소모한다면 태고종의 앞날을 위해 큰 불행이다. 올해는 마침 우리나라 불교사의 큰 봉우리였으며 한국불교를 중흥한 태고보우스님의 탄신 7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태고보우스님은 고려 말 5교 9산으로 난립하던 여러 종파를 회통하여 '구산원융 오교홍통'을 꾀한 분이시다. 난립하던 여러 종단을 하나로 화합 회통시키시고자 했던 보우스님을 종조로 하는 태고종이 탄신 7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그 분의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지는 못할망정 극한 대립으로 분규를 장기화한다는 것이 필 말인가. 태고보우스님의 원융화합정신으로 분규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화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군승단 한시 해체 '파문'

3군체제 전환... 조정·중재·협의 채널 공백

32년 동안 군포교에 대진해온 육해공군 군승단이 한시적 해체를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승단은 19일 호국원광사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군승단 운영체제를 한시적으로 국방부 및 각군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군승단 집행위원회와 대의원회, 선임법사회가 해체됐고, 군내에 발생하는 종교관련 등 여러 사건들에 대한 조정·중재·협의 채널이 사라지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선출과 <법회와 설법> 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해군·공군 법사들이 각 군별로 군승단을 조직하고 주장해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41대, 반대 38로

원승단의 한시적 해체가 결정됐다. 해군·공군 법사들은 그 동안 육군중심으로 운영되어온 군승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총인원 114명 가운데 88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또 군승단위원회 설치 문제와 <법회와 설법> 기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한 군승단 집행부의 사표도 추인했다.

국방부 정진진 선임법사는 "군승단 해체를 반대했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해 군승단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

원은 군승의 효율적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하여 군승단을 설치한다'고 명시된 군승령 7조를 근거로 군승단 해체는 군승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승단은 군의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라 임의조직으로 종단이 필요에 의해 만든 군포교 전담 기구였다.

포교원 포교국장 주경스님은 "최근 입대전 군승교육 실시하는 등 군승단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당혹스럽다"며 "28일까지 국방부 선임법사와 각군 선임법사들에게 임시총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두식 기자

태고종 두 총무원 조짐

총무원-총회 서로 입장차이 못 좁혀

내분이 장기화되고 있는 태고종의 현 총무원총회와 총회측이 19일 만났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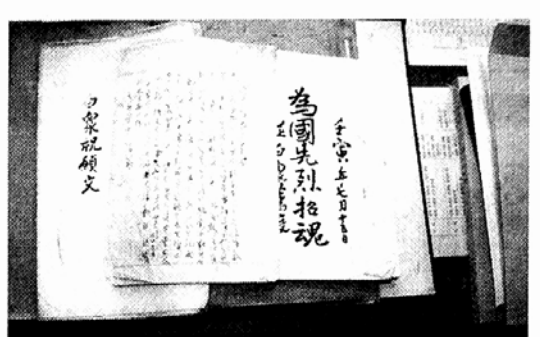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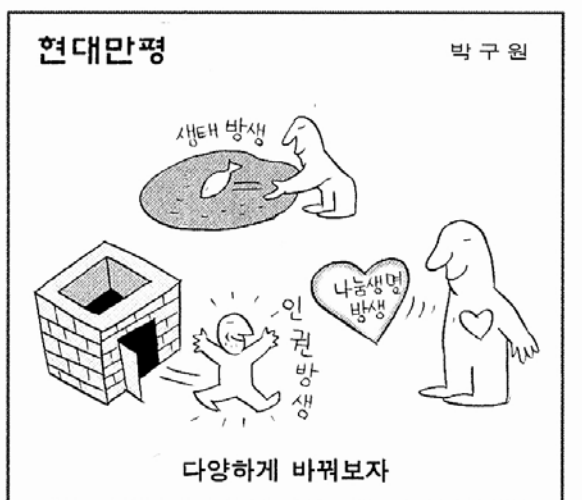
또 13일 임시총회에서 선임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법장스님은 2월 14일자로 '총무원장 직인무효' 공고와 총무원장 취임인사를 공개 신문에 내, 태고종의 양 총무원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총회위원장 남파스님과 부의장 대운스님, 법장스님, 자필스님 등은 19일 성북구 총무원사를 찾아 종

연스님에게 인수인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종연스님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계속 총무원장직을 수행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무봉)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종단원장으로 선출된 법장스님은 총무원장 직인무효" 공고와 취임인사를 공개 신문에 내, 태고종의 양 총무원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종회위원장 남파스님과 부의장 대운스님, 법장스님, 자필스님 등은 19일 성북구 총무원사를 찾아 종



이종욱스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밝혀주는 친필 축원문.

"이종욱 스님 김구선생 만났다"

동명사서 항일운동 자료 3점 발견 대동단 활동 기록...천일사비 가려질듯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이종욱스님(1884-1969)의 친필 '위국선열초혼문' 대동단 활동의 동기 '백중축원문'이 발견돼, 구체적인 기록과 물증이 없어 천일사비 분류 및 위기에 있던 스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조계종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원이 이종욱스님의 말년 주석처였던 주문진 동명사에서 발견한 스님의 '위국선열초혼문' '대동단활동 동기' '백중축원문'에는 김구선생이 광복직후 귀국한 이후에 서울 진관사로 스님과 이시영 선생을 불러 만남을 가졌다고 솔직한 내용이 수록돼 있어 스님의 행적을 가능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학자들은 '비타협적 항일민족주의자였던 김구선생이 이종욱스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스님에게 친일성향이 있어서였다'고 주장해왔다. 국가보훈처도 일부 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97년 이종욱스님의 공훈을 폄하하는 의견이 제기되며 조계종에 공식적인 의견을 의뢰한 바 있다.

초혼문에는 안창호, 김가진, 김원우 기자

김구, 전협, 정남용, 전진원, 이상재 선생, 무명의 이예곡, 이옥선, 이병규, 이병호, 이기만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 했던 사연을 기억해내며 79세의 노스님이 직접 백중천도의식을 행하는 추모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 안창호선생이 상해에서 이종욱스님에게 국내에 잠입, 독립운동조직인 연통조직을 부탁하는 광경을 회상하는 내용과 대동단 총재 김가진을 스님이 직접 국내에서 탈출시켜 상해로 안내한 사연, 월도기생사였던 전진원이 임시정부의 각종 비밀문서, 자료, 물품 등을 스님에게 전달하는 광경이 묘사돼 있다.

이와 함께 이종욱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던 1944년 유석현 강태동등과 비밀항일결사에 참여한 것으로 최근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원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은 "일방적 친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항일운동 기록이 발견된 만큼 스님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승가대 김포 첫 졸업식

승가대학교(총장 정범)는 20일 김포학사에서 첫 졸업식을 갖고 79명의 학인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총장 정범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항상 구도자적 삶을 견지하여 많은 이들에게 생존이상의 의미를 느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정진하길 바란다"며 "언제나 법왕의 법손으로서, 선지식의 후예로서 이 사회 등불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내달 20일 총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는)는 21일 총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원과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150회 임시총회를 3월 20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출 △불기 2544년 중앙총무원장 결산 승인 △종헌 개정, 종법(법규위원회법) 종법(법규위원회법) 개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제출한 영축총림 방장 재추대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성은 기자

세계·국민일보 해탈사건

불교NGO연대 사과 촉구

해탈사건에 대해 불교 NGO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실천승가회 재가연대 중앙신도회 대법청 대법원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사청년회 등 교계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세계일보와 국민일보의 해탈사건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단체들은 21일 참여

불교재가연대에서 열린 '국민일보, 세계일보의 불교음해 공작을 막기 위한 불교재단 연대회의(가칭)'에 참석, 세계일보사가 발행한 범죄 '영계리포트'와 국민일보에서 연재한 '김성일 창조사학 특강'을 명백한 해탈행위로 규정 짓고 공식사와 요청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불교단체들은 정식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22일 두 신문에 접수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제80회 임시중앙총회 개최에 대하여 종도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종도 여러분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전남 승선시에 소재한 로얄호텔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임시총회를 두고 종단 일각에서 불법총회 운운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정당한 총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총회의 입장에서 총회소집과 장소변경 그리고 결의과정에서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총회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혀드리오니 종도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임시중앙총회 개최 배경**  
 지난해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송종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자 법제 등 총무원장 후보자격문제와 제척사유(除斥事由) 등 회의 운영상의 하자(瑕疵)문제, 외도(外道)활동과 삼보계산 헌납문제,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금전살포(金錢撒布)문제 등 송종연 스님에 대한 각종 의혹(疑念)을 제기하는 정원서가 대본산 사찰인 봉선사에서부터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총회운영분과위원회가 약 2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총회의원 28명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의하여 총무원장 자격유무를 규명(究明)하기 위하여 제8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송종연 스님측에서는 총무원장의 동의(同意)를 받지 않았으니 이번 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회법을 곡해(曲解)하는 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입니다. 총회법 제24조 2항을 보면 총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열어도 되고 안열어도 그만인 임의(任意)규정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열어야 하는 강제(強制)규정으로 총무원장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총회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총무원장의 동의가 없어도 총회를 열 수 없다면 삼권분립(三權分立)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부수적인 소집절차(제25조)에 의해 필수적인 소집요건(제24조)이 사문화(死文化)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의 경우 총정·총무원장의 동의가 없어도 총회소집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

또한 이번 총회는 총무원장의 자격문제보다 두는 총회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자신과 상의하여 총회를 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지난 2월 1일 김대운 총회부의장이 총회의장을 대리하여 총무원을 발문해 2월중 조기(早期)결회를 통보하고 총회소집 직인(職印)인계 등 절차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해 놓고 이계에서 총무원장의 동의규정을 내세워 적법한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就)입니다.

**2. 임시중앙총회 장소변경의 불가피성**  
 원래는 2월 13일에 개최할 총회장소를 선암사에 공고(公告)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이번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송종연 스님측에서 총회의원들에게 공문 또는 전화로 통해 이번 총회가 불법총회이니 참석하지 말라며 총회불참을 적극 유도(誘導)하였으며, 버스 3대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총회를 방해할 계획이니 총회장소 제공을 취소하라며 선암사 주지에게 여러차례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에 선암사 주지는 양측의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종단이 분열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분기할인 선암사의 총원수호가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산문(山門)을 굳게 폐쇄하는 바람에 예정된 선암사를 포기하고 불가피하게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가능한한 당초에 공고되었던 선암사에서 총회를 하고자 의인들이 이동할 버스를 대절해 놓고 선암사 주지와 여러차례 전화접촉을 갖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엔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송종연 스님측에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를 이처럼 방해해 놓고 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한데 대하여 장소변경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장소변경 고지에 관계없이 성원이 된 총회는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음)

당시에 일부 총회의원(5, 6명 정도)이 선암사에 도착해 있었으나, 이종에서 한두명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총회불참이 아니라 오회려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회개회를 방해하려는 사람에까지 장소변경을 고지(告知)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번 총회는 모든 안건을 27명 전원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議決)하여 선암사에 있었던 총회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결의자에게는 아무런 변화나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3. 임시중앙총회의 의결(議決) 내용**  
 전기한 바와 같이 제척의원 49명중 27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먼저 사무처에서 총회장소 변경에 따른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총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장소변경을 결의한 후 유남파 총회부의장의 사퇴로 오전 11시경에 개회(開會)하여 먼저 제척사유 등에 관한 시행안을 처리한 다음 총회운영분과위원회가 조사한 정원서 처리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송종연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취소를 의결하고 김법장(金法藏) 스님(수인 대려사 주지)을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새로 선출된 김법장 총무원장은 일본 대정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학승(學僧)으로 사정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총회부의장을 맡아 왔으며, 은퇴하고 원만한 성품으로 지도자의 자질을 두루 갖춘 훌륭한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한말승 절인(函言)한다면 이번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 많은 총회의원들이 그동안 총무원장 직임자로 주묵(注目)받아온 이운산(李雲山) 스님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종단의 화합을 위해 총무원장으로 나서지 않겠다"며 강하게 고사(固辭)하는 바람에 김법장 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송종연 스님이 총무원장 인계(任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앙총회에서는 총회 다음날 총무원에 공문을 보내어 총회결과를 설명하고 선임 총무원장에게 빠른시일내에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송종연 스님은 이번 총회가 무효라며 인계 인수를 거부하면서 총회를 다시 열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다는 그때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하자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성한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송종연 스님은 총회전에 여러사람 앞에서 이운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술선해서 사표내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하였는데, 이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된 만큼 계속하여 버릴 이유도 명분도 없으므로 하루 빨리 이성(理性)을 되찾아 선임총무원장에게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 종단을 정상화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제 우리 종단도 활짝이입니다.**  
 우리 종단은 지금 매우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으로는 종도의 종단관이 이완(弛緩)되어 구심력(求心力)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밖으로는 신생종단의 도전에 직면하여 전통(傳統)종단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는 철학과 능력을 가진 사심(私心)없는 지도자가 나와 종단을 개혁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동안 종단요직은 물론 부대(附帶)사업까지 장악하여 실리(實利)를 쟁겨온 사람들, 아직도 자기만이 최고인 것처럼 위선(僞善)과 작각(錯覺)에 빠져 오만(傲慢)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모든 종도들은 개인적인 원수(冤讎)나 정신(情愆)에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종단을 위하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총무원장 선거가 표시( 표시)가 된 이번 종단사태가 어디에 원인이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깊이있게 성찰(省察)하여 기록권을 가지고 종단을 농단(農斷)하려는 불순한 사람들에 동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도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종단을 살리고 종도를 화합으로 이끌어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감히 강조하면서 종도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